

## 성인진입기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 성별,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

정 혜 원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성별,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연애 중인 성인진입기 334명(남: 139명, 여: 195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의 모델 3을 활용하여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성별과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운명 신념, 성장 신념)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운명 신념의 조절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운명 신념이 약할 때만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가 관계 투자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운명 신념이 평균 이상일 때만 이러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남녀 각각의 운명 신념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를 PROCESS macro의 모델 1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운명 신념의 수준이 평균 이상인 여성의 경우에만 관계 지속 기간이 길 때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가 관계 투자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전략을 논하였다.

주요어 :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관계 투자,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

\* 본 연구는 정혜원의 2018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lee1@ewha.ac.kr

국내 데이트 폭력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2017년 한 해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10,30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9%나 증가하였다(경찰청, 2018).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로(Ronfeldt, Kimerling, & Arias, 1998), 데이트 폭력 피해 후 유증은 자존감 저하, 우울, 자살 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내재화 증상이나 흡연, 음주 등 물질 사용, 이상 섭식행동, 자해 같은 외현화 증상으로 나타난다(Chiodo, Wolfe, Crooks, Hughes, & Jaffe, 2009; Exner-Cortens, Eckenrode, & Rothman, 2013; Van Ouytsel, Ponnet, & Walrave, 2017). 또한 가장 심각하게는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놀라운 점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인 관계를 지속할 뿐 아니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2016년 한국여성 의전화 설문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을 때 19.0-42.3%에 해당하는 여성이 가해자의 기분을 맞춰주는 행동을 하였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이해하고 용서해주며 피해자인 데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박경은, 유영권, 2017). 이는 데이트 폭력이 계속될수록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White, Merrill, & Koss, 2001) 관계 패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견디는 방식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즉, 폭력적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자가 경험하는 부적응의 수준은 더욱 심각해진다(박경은, 2017).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은 피해자가 관계를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ornelius & Resseguie, 2007).

성인진입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개인적 정체성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이다(Arnett, 2000). 이러한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는 데이트가 활발히 일어나며 그만큼 데이트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8-24세 남성의 39%, 여성의 47%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였으며(Griffin, Garthe, Worthington, Sullivan, Larsen, Lavelock, & Davis, 2015),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학생의 41%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정은,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성적, 심리적 형태로 행해지며, 이 중 심리적 데이트 폭력은 통제, 협박, 비하의 의미가 담긴 언어적 공격을 하거나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등 비언어적 공격을 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Beyers, Leonard, Mays, & Rosen, 2000). 심리적 데이트 폭력은 신체, 성적 데이트 폭력과 달리 물리적 형태의 공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가치관, 성격 차이로 인한 관계 갈등 정도로 간주하고 심각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심리적 데이트 폭력은 신체, 성적 데이트 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연인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심리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인간관계에서 이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사람들은 연인 관계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Murray, Holmes, & Collins, 2006). 즉, 연인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연인으로부터 심리적 폭력을 당했을 때 더욱 실망하고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된다(Follingstad, Rutledge, Berg, Hause, & Polek, 1990). 이러한 심리적 폭력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데, 심리적 폭력 피해는 신체적 폭력 피해를 통제했을 때에도 여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Arias & Pape, 1999).

이러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관계를 종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거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종종 관찰된다(Edwards, Gidycz, & Murphy, 2011; Rhatigan & Street, 2005).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피해자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Rusbult(1983)가 제안한 투자모델(investment model)의 관계 투자(relationship investment)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투자 모델은 관계 지속/종결과 관련한 개인의 의도를 설명해주는 유용한 모델로, 관계 만족(relationship satisfaction), 관계 투자, 대안의 질(quality of alternatives)의 수준을 통해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 즉, 관계 헌신을 예측하게 된다. 이 중 관계 투자는 개인이 관계에 쏟아 부은 심리적(시간, 에너지, 노력 등), 물질적(선물, 공유한 재산, 애완동물 등) 자원으로, 관계가 끝났을 때 잃게 될 모든 것을 뜻한다(이정은, 현명호, 유제민, 2007; Rusbult & Martz, 1995).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을 때 관계 투자가 증가하였다(Edwards et al., 2011; Rhatigan & Street, 2005). 이에 대해 Rhatigan과 Street(2005)는 심리적 데이트 폭력이

물리적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심리적 폭력을 관계 갈등으로 받아들이고, 갈등 해결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거나 가해자에게 선물을 주는 등 물질적인 것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물리적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 폭력으로 인식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신체적 데이트 폭력 피해의 경우 관계 투자의 증가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로 뒷받침된다(Rhatigan & Axsom, 2006; Rhatigan & Street, 2005). 그러나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가 관계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등(Edwards, Gidycz, & Murphy, 2015; Rhatigan & Axsom, 2006),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가 비일관적이므로 이들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들에 대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유형이든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 혹은 피해자 주변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등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폭력적 관계를 떠나지 못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2016) 설문 결과에 따르면 폭력적 관계의 지속 이유로 가해자의 협박은 0.9-4.8%만을 차지한 반면, 폭력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가해자의 변화가능성을 믿은 경우 등 피해자의 개인 내적인 요인은 4.0-2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쉼터나 거주 공간 등 외적 요인에 대한 개입이 제공되어도 정서적 동기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해서 폭력적 관계에 머무르거나 관계 종결 이후에 다시 가

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밝혀졌다(Martin, Berenson, Griffing, Sage, Madry, Bingham, & Primm, 2000). 즉, 피해자가 폭력적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에서 개인 내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지므로 본 연구는 피해자의 개인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먼저,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관계 투자 여부는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ood(2001)의 '동화 이야기(fairy tale narrative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폭력 유형과는 상관없이, 폭력적 관계를 지속한 경험이 있는 여성 20명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믿음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동화 이야기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속 공주님처럼 자신도 왕자님을 만나 어떤 역경이든 극복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의미한다. Wood(2001)의 연구에서 여성 피해자들은 동화 이야기 때문에 가해자를 좋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들이 경험한 폭력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축소 해석하였으며 자신이 처신을 잘 하면 더 이상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경험한 폭력적 관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다. 이처럼 주변 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입된 동화 이야기로 인해, 특히 여성 피해자의 경우 데이트 폭력을 당했음에도 관계 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성역할 사회화로 인해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와 관련된 인지 도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여성은 관계의 질을 중시하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Acitelli, Rogers, & Knee, 1999), 관계 갈등에 대해 남성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Tamres, Janicki, & Helgeso,

2002). 반면, 남성은 성취나 과업 중심으로 사회화되며(Cheng, 2010),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Shi, 2003). 단순한 관계 갈등으로 인식되기 쉬운 심리적 데이트 폭력에 대해, 관계 지향적이며 관계의 질을 중시하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관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에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첫 번째 변인으로 성별을 고려하고자 한다.

한편,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관계 갈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해도, 관계에 대해 어떤 인지 도식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가 여성들 사이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 성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무엇이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느냐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성공적인 관계는 관계 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믿음, 즉, 성장 신념(growth belief)과 성공적인 관계는 운명적 상대를 만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믿음, 즉, 운명 신념(destiny belief)으로 구분할 수 있다(Franiuk, Cohen, & Pomerantz, 2002).

성장 신념과 운명 신념은 개념적,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신념으로, 개인이 두 신념을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 운명적으로 정해져있는 상대를 만나 관계 내의 어려움을 노력해서 극복하는 것을 통해 성공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 예이다(Burnette & Franiuk, 2010; Knee,

Nanayakkara, Victor, Neighbors, & Patrick, 2001). 이러한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은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맺고 종결하는 것을 반복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안정적 신념으로 (Franiuk et al., 2002), 개인이 관계나 그들의 연인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관계의 지속/종결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등(Franiuk, Pomerantz, & Cohen, 2004; Knee, 1998) 관계와 관련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해주므로 폭력적인 관계에 대한 투자와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성장 신념과 운명 신념은 관계 내의 서로 다른 행동 양상과 관련된다. 먼저, 성장 신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많이 하고 관계 지속 의도를 많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하려 한다(Weigel, Lalasz, & Weiser, 2015). 또한 성장 신념이 강한 경우 연인이 자신의 이상형과 일치하는지를 굳이 평가하고 판단하려 하지 않으며(Knee et al., 2001), 연인이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이유로 연인의 배신을 용서해준다거나(Burnette & Franiuk, 2010), 잘못을 축소하여 지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Franiuk et al., 2004).

하지만 운명 신념의 수준이 높은 경우 연인이 자신의 이상형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관계와 관련된 행동 양상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운명 신념이 강한 사람은 관계 초기에 연인이 자신의 운명의 짝인지 계속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 결과 연인과 자신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관계 초기에 헤어짐을 선택한다(Franiuk et al., 2002; Knee, 1998). 그러나 일단 연인이 자신의 운명의 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관계에 더 만족할 뿐 아니라 연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Franiuk et al.,

2012). 이를 위해 운명 신념이 강한 사람은 연인의 배신을 용서해주거나(Burnette & Franiuk, 2010), 연인의 잘못을 축소하여 지각하는 등 인지적 왜곡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raniuk et al., 2002).

이와 관련하여, 운명 신념이 강한 사람의 경우 관계 지속 기간에 따라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Franiuk, Shain, Bieritz와 Murray(2012)에 따르면 운명 신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현재 관계 지속 기간이 짧을 때는 데이트 폭력을 적게 경험하였으나 관계 지속 기간이 길 때에는 데이트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명 신념이 강한 사람은 관계 초기에 연인과 관계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태도가 강하다. 이에 관계 초기에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다면 이를 관계의 실패를 알리는 신호로 느껴 관계를 종결하였다. 반면, 관계 초기에 연인이 자신의 운명의 짝이라고 판단하여 일단 관계를 지속하게 되면, 이들은 자신의 평가와 판단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가 성별 및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성장 신념, 운명 신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운명 신념의 수준이 높은 경우 관계 지속 기간에 따라 심리적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계 투자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 2)은 다음과 같다.

#### 1.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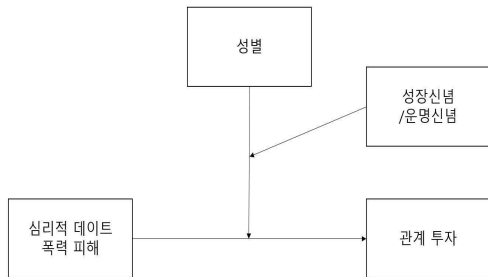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문제 1, 2에 대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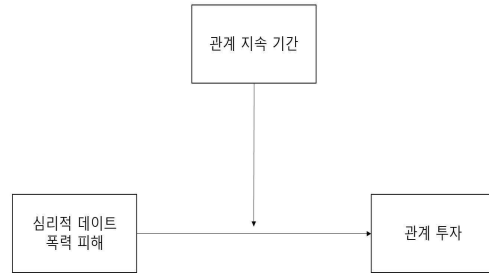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문제 3에 대한 모형

관계에서 성별과 성장 신념의 조절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2.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성별과 운명 신념의 조절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3. 운명 신념의 수준이 높은 경우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경우(31명, 8.3%)를 제외하고, 334명(남: 139명, 41.6%; 여: 195명, 58.4%)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2.09세( $SD=1.86$ )였다.

연구 참여자의 교제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70명, 21.0%)이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1년 미만(66명, 19.7%), 3년 이상(50명, 15.0%)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평균 데이트 횟수는 주 2-3회(134명, 40.1%), 주 1회(101명, 30.2%), 거의 매일(66명, 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현재 연애 중인 성인진입기 미혼 남녀 374명을 대상으로 2018년 9월에 온라인을 통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순서 효과를 고려하여 측정 도구의 순서가 다른 두 가지 유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 소요시간은 약 10분이었다. 설문지는 Google 설문지 양식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 성인진입기 남녀가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설문지 링크를 등록하여 자유롭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전체적으로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9명, 2.4%)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 측정도구

####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개정판 갈등 척도 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 Scale: CTS II)를 김정란과 김정신(1999)이 국내 대학생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22문항 중 심리적 데이트 폭력 11문항을 사용하였다(예,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인으로 부터 경험한 심리적 데이트 폭력의 빈도를 7점 리커트 척도(0: 전혀 없음-6: 20회 이상) 상에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김정란과 김정신(1999)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 관계 투자

Rusbults, Martz와 Agnew(1998)의 투자모델 척도(Investment Model Scale)를 이정은 등(2007)이 번안한 것 중 어색한 문장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총 37문항 중 관계 투자를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우리의 관계가 끝난다면 잃게 될 많은 것들을 우리의 관계에 투자해 왔다'). 본 척도는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이후 관계 투자의 증감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Edwards et al., 2011, 2015; Rhatigan & Axsom, 2006; Rhatigan & Street, 2005), 9점 리커트 척도(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완전히 동의한다)상에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투자를 많이 함을 의미한다. 이정은 등(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

Knee 등(2003)이 개발한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Implicit Theories of Relationships Scale)를 이중 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했다. 총 22 문항으로, 성장 신념과 운명 신념이 각각 11 문항이며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성장 신념 문항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다툼은 종종 관계를 개선시켜준다' 등으로 구성되며, 운명 신념 문항은 '좋지 않게 시작한 관계는 필연적으로 실패 한다', '성공적인 관계는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잘 맞는 연애 상대를 찾는 것에 달려 있다' 등을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Knee 등(200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성장 신념 .74, 운명 신념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75, .83 이었다.

### 관계 지속 기간

설문지에 포함된 연인 관계 관련 질문 중 "현재 연인과 교제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를 통해 얻은 정보를 리커트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7점 리커트 척도(1: 1개월 미만-7: 3년 이상)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지속 기간이 긴 것을 의미한다.

### 자료분석

SPSS 21.0 프로그램으로 기본 분석을 실시한 후, PROCESS macro v3.1의 모델 3을 활용하여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성별과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성장 신념, 운명 신념)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남녀를 각각 운명 신념의 수준이 평균 미만일 때와 평균 이상일 때로 나누어,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를 모델 1을 통해 검증하였다.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은 평균중심화했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으로 조건부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 결 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차이검증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1), 남성은 여성보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더 많이 당하며( $t=2.86$ ,  $p<.01$ ,  $d=.32$ ), 관계 투자를

표 1.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 검증

측정 변인	남( <i>n</i> =139)	여( <i>n</i> =195)	<i>t</i>
	<i>M(SD)</i>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10.67(8.66)	8.16(7.32)	2.86**
관계 투자	25.09(7.64)	19.88(8.17)	5.89***
성장 신념	57.76(7.62)	55.05(7.70)	3.19**
운명 신념	38.33(10.84)	37.76(10.19)	.49
관계 지속 기간	4.07(1.78)	4.57(1.72)	-2.57*

\*\*\**p*<.001, \*\**p*<.01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89, *p*<.001, *d*=.66).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성장 신념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3.19, *p*<.01, *d*=.36). 반면 관계 지속 기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t*=-2.57, *p*<.05, *d*=.29). 효과크기를 살펴보았을 때, 관계 투자에서 성차는 중간 정도보다 크지만 그 외의 경우에서 성차는 중간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92).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1	2	3	4	5
1	-	.10	-.01	-.02	.15
2	.14*	-	.32***	.09	.17*
3	.05	.26***	-	-.06	.03
4	-.15*	-.07	-.33***	-	-.14
5	.11	.14	.18*	-.08	-

주. 대각선 위 남성(*n*=139), 아래 여성(*n*=195)

1=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2=관계 투자, 3=성장 신념, 4=운명 신념, 5=관계 지속 기간

\*\*\**p*<.001, \**p*<.05

(표 2), 남녀 모두 관계 투자와 성장 신념 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sub>남</sub>=.32, *p*<.001; *r*<sub>여</sub>=.26, *p*<.001). 반면 관계 투자와 관계 지속 기간 간의 경미한 정적 상관은 남성의 경우에만 나타났다(*r*=.17, *p*<.05). 그러나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 간의 정적 상관(*r*=.14, *p*<.05), 성장 신념과 관계 지속 기간 간의 정적 상관(*r*=.18, *p*<.05),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운명 신념 간의 부적 상관(*r*=-.15, *p*<.05)은 여성의 경우에만 나타났다. 성장 신념과 운명 신념 간의 부적 상관도 여성의 경우에만 확인되었다(*r*=-.33, *p*<.001).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관계 투자, 성별,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관계

여성이 관계 지향적으로 사회화되어(Acitelli et al., 1999) 관계 내의 갈등에 대해 남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므로(Tamres et al., 2002),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관계 투자에 있어 성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성별을 제 1 조절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여성이라도 관계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관계 투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성장 신념, 운명 신념)을 제 2 조절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성별과 성장 신념의 조절된 조절효과 검증

PROCESS macro(모델 3)을 통해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성별과 성장 신념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3),  $XWZ$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B=.08, n.s$ )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성별, 성장 신념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성별과 운명 신념의 조절된 조절효과 검증

PROCESS macro(모델 3)을 통해 심리적 데이

표 3.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성별과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의 조절된 조절효과

	<i>B</i>	<i>SE</i>	<i>t</i>	<i>R</i> <sup>2</sup>	<i>F</i> (7,326)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i>X</i> )	.19	.17	1.16		
성별( <i>W</i> )	-.82	.18	-4.72**		
<i>X*W</i>	.18	.25	.74		
성장 신념( <i>Z</i> )	.68	.20	3.47**	.43	10.34***
<i>X*Z</i>	.10	.21	.46		
<i>W*Z</i>	-.08	.25	-.31		
<i>X*W*Z</i>	.08	.33	.24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i>X</i> )	.25	.17	1.44		
성별( <i>W</i> )	-.93	.18	-5.2***		
<i>X*W</i>	.17	.25	.69		
운명 신념( <i>Z</i> )	.23	.14	1.59	.13	6.85***
<i>X*Z</i>	-.34	.18	-1.89		
<i>W*Z</i>	-.28	.19	-1.44		
<i>X*W*Z</i>	.62	.28	2.20*		

주. 남성=0, 여성=1로 코딩함

\*\*\*  $p < .001$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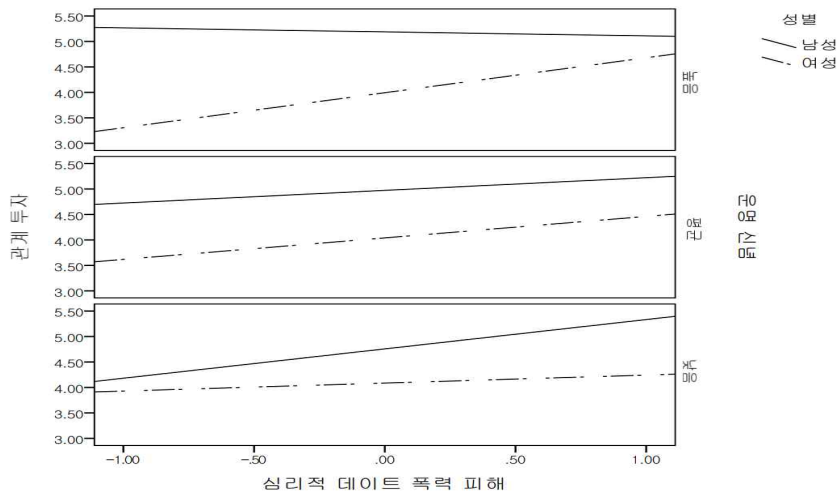


그림 3. 관계 투자에 대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성별, 운명 신념의 삼원 상호작용

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성별과 운명 신념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3),  $XWZ$ 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B=.62, p<.05$ ), 관계 투자에 대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성별, 운명 신념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성별, 운명 신념의 삼원 상호작용은 관계 투자 분산의 1.3%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운명 신념의 값이 평균 및 평균±1SD 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 투자에 대한 조건부 효과 그래프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운명 신념의 수준이 낮을 때(평균-1SD)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가 관계 투자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반대로 여성의 경우 운명 신념의 수준이 평균이거나 높을 때(평균+1SD)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가 많은 것이 관계 투자 증가와 연합되었다.

**운명 신념 수준에 따른,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운명 신념의 수준에 따른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가 남녀 집단 간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관계 지속 기간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과 운명 신념의 조절된 조절효과 결과에 기초하여 남녀를 각각 운명 신념이 낮은 수준(평균-1SD미만)과 높은 수준(평균 이상)으로 집단 자체를 구분하였다(운명 신념 수준이 평균-1SD 이상부터 평균 미만인 경우는 분석에 미포함하였음). PROCESS macro 모델 1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표 4), 운명 신념의 수준이 평균 이상인 여성의 경우에만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 $B=.46, p<.05$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지속 기간의 상호작용은 관계 투자 분산의 5.7%를 설명해주

표 4.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

		B	SE	t	R <sup>2</sup>	
운명 신념의 수준이 낮은 남성(n=23)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X)	-.47	.39	-1.20	.22	F(3,19) =1.81
	관계 지속 기간(W)	.38	.18	2.10*		
	X*W	-.23	.20	-1.14		
운명 신념의 수준이 높은 남성(n=64)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X)	-.08	.22	-.34	.02	F(3,60) =.49
	관계 지속 기간(W)	.13	.11	1.20		
	X*W	-.04	.12	-.38		
운명 신념의 수준이 낮은 여성(n=26)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X)	.64	.67	.96	.08	F(3,22) =.63
	관계 지속 기간(W)	.14	.25	.56		
	X*W	-.43	.41	-1.05		
운명 신념의 수준이 높은 여성(n=93)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X)	.31	.30	1.04	.12	F(3,89) =4.20**
	관계 지속 기간(W)	.25	.10	2.44*		
	X*W	.46	1.92	2.41*		

주. 운명 신념 수준이 낮은 집단=운명 신념 수준이 평균-1SD 미만인 경우

운명 신념 수준이 높은 집단=운명 신념 수준이 평균 이상인 경우

\* $p < .05$ , \*\* $p < .01$

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계 지속 기간의 평균±1SD 수준에서 관계 투자에 대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의 조건부

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운명 신념 수준이 평균 이상인 여성들의 경우, 관계 지속 기간이 길 때의 신뢰구간(.34 ~ 1.91)에만

표 5. 운명 신념의 수준이 평균 이상인 여성의 관계 지속 기간 길이에 따른 관계 투자에 대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의 조건부 효과

관계 지속 기간	Effect	Boot SE	95% CI	
			LL	UL
짧음 (-1SD)	-.49	.50	-1.49	.50
평균 (Mean)	.31	.30	-.29	.92
깊 (+1SD)	1.12	.40	.34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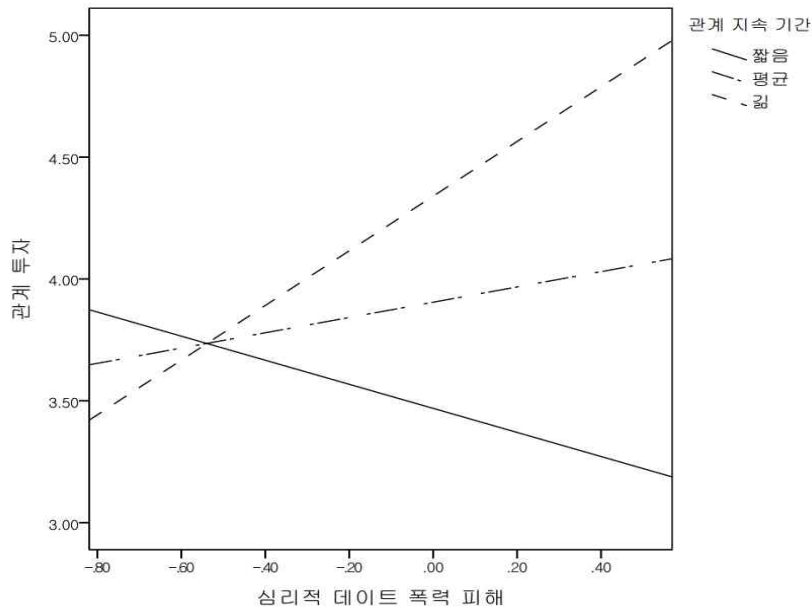


그림 4. 운명 신념의 수준이 평균 이상인 여성의 관계 투자에 대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지속 기간의 상호작용

0이 포함되지 않아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가 많은 것이 관계 투자 증가와 연합되었다(그림 4).

### 논 의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성별과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성장 신념, 운명 신념)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운명 신념이 강한 경우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차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관계 투자, 성장 신념 수준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관계 지속 기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길었다. 이 중 관계 투자의 경우에만 효과크기가 중간 정도 이상이었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인 관계에 더 몰입하고 감정적, 물질적인 것을 관계에 쏟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이지연, 정태연, 2007) 남성이 여성보다 관계 투자를 더 높게 보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여성일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며(Hines & Saudino, 2003), 결과적으로 연인 관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

(Griffin et al., 2016)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기보고식 설문방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역할 신념은 미국, 스웨덴, 일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백주희, 2009), 전통적인 성역할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남성은 주도적이고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국내 남성에게 여성의 ‘순종적’이지 못한 태도는 불편감으로 지각될 것이고, 이에 자신이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보고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 상관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의 경우에만 성장 신념과 운명 신념이 부적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성장 신념과 운명 신념 간에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던 선행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Franiuk et al., 2012; Knee et al., 1998),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관계적 맥락에서 정체성을 형성한다(Gilligan, 1993). 즉, 여성에게 관계의 질이란 자신의 자아와 연관되는 것으로, 관계의 성공 여부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관계 초반에 관계의 지속/종결 여부를 남성보다 더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고, 운명적으로 잘 맞지 않아 보이는 상대에 대해서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서 운명 신념과 성장 신념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외국 연구에서는 나타난 바 없다. 다만 관계의 이동성(relational mobility)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주의 문화권(홍콩)에 속하는 사람이 관계의 이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개인주의 문화권(캐나다)에 속하는 사람보다 운명 신념을 더 강하게 가지며, 이로 인해 거부민

감성(rejection sensitivity)의 수준도 더 높았던 연구(Lou & Li, 2017)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관계의 이동성이 낮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지 않고 상대에게 거부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처음부터 자신과 잘 맞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성공적 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해지며, 이로 인해 운명 신념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운명적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성별과 성장 신념의 조절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관계 투자에 대한 성장 신념의 단순 효과만 나타났다. 이는 성장 신념의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 유지를 위한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Weigel et al., 2015).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성장 신념의 조절효과가 성별에 불문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운명 신념의 경우와는 달리, 성장 신념의 수준이 높은 경우 연인의 잘못을 축소하여 지각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Franiuk et al., 2002).

마지막으로, 남성의 경우 운명 신념의 수준이 낮을 때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많은 것은 관계 투자 증가와 관련되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과 관계 투자의 정적 관계는 운명 신념의 수준이 평균 이상일 때에만 관찰되었다. 우선 남성의 결과부터 살펴보자면, 남성 대상으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

를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고 운명 신념 수준이 낮은 남성의 관계 관련 행동에 대한 연구도 찾을 수 없어 해석이 조심스러우나,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운명 신념의 수준이 낮은 남성에게 연인 관계의 성공 여부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이 경험한 심리적 데이트 폭력도 관계 개선을 위해 시간과 물질적 자원을 들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남성은 지배적 입장에서 관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역할 사회화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Pleck, 1995). 이에 관계의 성공 여부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믿을 때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력이 더 커지며, 이 경우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당해도 관계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관계의 성공 여부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강할 때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가 관계 투자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운명 신념 강한 경우, 일단 연인이 자신의 운명의 짝이라고 결정하게 되면 관계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축소하여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Burnette & Franiuk, 2010; Franiuk et al., 2002). 이에 운명 신념이 강한 경우 관계 지속 기간이 길수록 데이트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Franiuk et al., 2012). 운명 신념이 강한 여성들은 관계 초기에 상대를 계속 평가하며, 이 때 나타나는 심리적 데이트 폭력은 관계를 종결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 일단 상대를 운명의 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심리적 데이트 폭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정적 신호들을 왜곡하면서까지 관계 투자는 계

속될 것이다. 즉 운명 신념이 강한 경우 관계 지속 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데이트 폭력에 대해 관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더 큰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운명 신념의 수준이 낮은 경우와 평균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남녀 각각에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를 추가 탐색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운명 신념의 수준이 평균 이상인 여성 중 관계 지속 기간이 긴 여성의 경우에서만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관계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명 신념이 강할 때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를 밝힌 선행연구들(Burnette & Franiuk, 2010; Franiuk et al., 2002)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가 여성에게서만 나타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동화 속 이야기를 보며 동화 속 왕자님 같은 운명의 짝을 만나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왜곡된 신념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다(Wood, 2001). 성공적 관계를 위해 운명의 짝을 만나야 한다는 신념이 강한 여성의 경우 관계 지속 기간이 길다는 것은 이미 상대를 이상형으로 수용하였다는 증거일 수 있고, 그 경우 여러 부정적 경험에도 행복한 결말을 위해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이 희생하고 인내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일 수 있다.

정리하면, 남성의 경우 관계의 성공 여부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약할 때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관계 투자를 늘렸다. 반면, 여성의 경우 관계의 성공 여부

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강하며, 특히 관계 지속 기간이 길 때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관계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데이트 폭력은 경미하거나 빈번하지 않을 경우 흔히 관계 갈등으로 간주되어 무시되기 쉽지만, 더 심각해지고 만성화될 경우 다른 물리적 형태의 데이트 폭력만큼 부정적 결과가 따르게 되므로 적절히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우 남녀에 따라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즉,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남성 피해자에게는 관계의 성공 여부가 운명의 짝을 만나는 것과 관련될 수 있고 이상적 짝을 찾기 위해 신중하게 평가하고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여성 피해자에게는 동화 이야기와 같이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연애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판단했어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정적 신호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심리적 데이트 폭력은 신체, 성적 데이트 폭력의 전초이며 폭력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떤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폭력적 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관계 투자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개인의 행동 양상이 사회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남성상, 여성상, 즉 성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연인 관계에서 남성은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것

을, 여성에게는 수동적이고 관계 지향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입시킨다(Prentice & Carranza, 2002). 우리나라의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은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Cotter, Hermsen, & Vanneman, 2011), 이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폭력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약화시키려는 사회의 노력 역시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폭력적 관계에 대한 투자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인데 본 연구는 특히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주목하여 이의 기제를 살펴봐왔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관계를 종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거 연애의 폭력, 투자 정도에 대해 회상을 요구할 경우 기억 왜곡 가능성이 다분한데(Lloyd & Cate, 1985), 본 연구는 현재 연애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Edwards et al., 2011, 2015; Rhatigan & Street, 2005; Rhatigan & Axsom, 2006), 본 연구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많이 다루어진 적이 없는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성장 신념, 운명 신념)을 변인으로 사용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관계에 대한 암묵적 이론과 성별의 조절된 조절효과를 통해 폭력적 관계에 대한 투자를 살펴봄으로써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을 때의 반응 양상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먼저, 심리적 데이트 폭력을

당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투자의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관계 투자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관계를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대의 폭력을 견딜 수도 있기 때문에(Katz, Tirone, & Schukrafft, 2012), 중단연구를 통해 이들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심각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므로 설문조사나 질적 연구를 통해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Rusbult의 투자 모델(1983) 관계 투자 척도는 비록 데이트 폭력을 당한 후의 관계 투자를 측정하기 위해 그동안 일관되게 사용되어 온 도구이긴 하지만,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적, 물질적 자원 투자에 대한 내용을 측정한다. 따라서 추후에는 구체적으로 관계 갈등에 대한 관계 개선 행동을 반영하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여 본 연구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성별, 운명 신념의 삼원 상호작용이나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지속 기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지만 설명력이 작았으므로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녀를 각각 운명 신념 수준이 평균 이상인 경우와 낮은 경우로 나누어서 심리적 데이트 폭력 피해와 관계 투자의 관계에서 관계 지속 기간의 조절효과를 보았으나, 표본 크기가 작아서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큰 표본을 통해 재검증해 볼 것을 권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발달 과정과 관련하여 데이트가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는 성인진입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여 발달적 차이로 인한 상이한 결과가 반영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경찰청 (2018. 08. 14) 데이트폭력, 방치하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21&ntId=138839&menuNo=200494>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 박경은 (2017). 결혼적령기 남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경험. *상담학연구*, 18(4), 409-430.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정은 (2018).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갈등해결전략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백주희 (2009).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239-251.
- 이정은, 현명호, 유제민 (2007).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수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83-995.
- 이지연, 정태연 (2007). 대학생 데이트 커플의 애정표현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315-330.
- 한국여성의전화 (2016. 10. 24). 2016년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28328](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28328)
- Acitelli, L. K., Rogers, S., & Knee, C. R. (1999).



- The role of identity in the link between relationship thinking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5), 591-618.
- Arias, I., & Pape, K. T. (1999). Psychological abuse: Implications for adjustment and commitment to leave violent partners. *Violence and Victims, 14*(1), 55-67.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eyers, J. M., Leonard, J. M., Mays, V. K., & Rosen, L. A. (2000).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ourtship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5), 451-466.
- Burnette, J. L., & Franiuk, R. (2010).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theories of relationships and partner fit: Predicting forgiveness in developing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2), 144-148.
- Cheng, C. C. (2010). A study of inter-cultural marital conflict and satisfaction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4), 354-362.
- Chiodo, D., Wolfe, D. A., Crooks, C., Hughes, R., & Jaffe, P. (2009). Impact of sexual harassment victimization by peers on subsequent adolescent victimization and adjust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3), 246-252.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ornelius, T. L., & Resseguie, N. (2007).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programs for dating viol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3), 364-375.
- Cotter, D., Hermsen, J. M., & Vanneman, R. (2011). The end of the gender revolution? Gender role attitudes from 1977 to 2008.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1), 259-289.
- Edwards, K. M., Gidycz, C. A., & Murphy, M. J. (2010). College women's stay/leave decisions in abusive dating relationships: A prospective analysis of an expanded investment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7), 1446-1462.
- Edwards, K. M., Gidycz, C. A., & Murphy, M. J. (2014). Leaving an abusive dating relationshi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0*(16), 2908-2927.
- Exner-Cortens, D., Eckenrode, J., & Rothman, E. (2012).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een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adverse health outcomes. *Pediatrics, 131*(1), 71-78.
- Follingstad, D. R., Rutledge, L. L., Berg, B. J., Hause, E. S., & Polek, D. S. (1990). The role of emotional abuse in physically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5*(2), 107-120.
- Franiuk, R., Cohen, D., & Pomerantz, E. M. (2002). Implicit theories of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longevity. *Personal Relationships, 9*(4), 345-367.
- Franiuk, R., Pomerantz, E. M., & Cohen, D. (2004). The causal role of theories of relationships: Consequences for satisfaction and cognitive strateg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1), 1494-1507.
- Franiuk, R., Shain, E. A., Bieritz, L., & Murray, C.

- (2012). Relationship theories and relationship viol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9*(6), 820-838.
- Gilligan, C. (1993).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iffin, B. J., Garthe, R. C., Worthington, E. L., Sullivan, T. N., Larsen, R., Lavelock, C. R., & Davis, D. E. (2015). How positive processes function in negative relationships: Dispositional gratitude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affective need and frequency of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4), 388-398.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ines, D. A., & Saudino, K. J. (2003). Gender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physical, and sexual agg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using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Violence and Victims, 18*(2), 197-218.
- Katz, J., Tirone, V., & Schukrafft, M. (2012). Breaking up is hard to do: Psychological entrapment and women's commitment to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and Victims, 27*(4), 455-469.
- Knee, C. R. (1998). Implicit theories of relationships: Assessment and predi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initiation, coping, and longe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360-370.
- Knee, C. R., Nanayakkara, A., Vietor, N. A., Neighbors, C., & Patrick, H. (2001). Implicit theories of relationships: Who cares if romantic partners are less than ide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08-819.
- Lloyd, S. A., & Cate, R. M. (1985). Attribution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turning points in premarital relationship development and dissolu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 419-436.
- Lou, N. M., & Li, L. M. W. (2017). Interpersonal relationship mindsets and rejection sensitivity across cultures: The role of relational mo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8*, 200-206.
- Martin, A. J., Berenson, K. R., Griffing, S., Sage, R. E., Madry, L., Bingham, L. E., & Primm, B. J. (2000). The process of leaving an abusive relationship: The role of risk assessments and decision-certaint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2), 109-122.
- Murray, S. L., Holmes, J. G., & Collins, N. L. (2006). Optimizing assurance: The risk regulation system in relationships. *Psychological Bulletin, 132*(5), 641-666.
-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F. Levant & W.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1-32). Basic Books.
- Prentice, D. A., & Carranza, E. (2002). What women and men should be, shouldn't be, are allowed to be, and don't have to be: The contents of prescriptive gender stereotyp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4), 269-281.
- Rhatigan, D. L., & Axsom, D. K. (2006). Using the investment model to understand battered women's commitment to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1*(2), 153-162.

- Rhatigan, D. L., & Street, A. E. (2005). The impac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decisions to leave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2), 1580-1597.
- Ronfeldt, H. M., Kimerling, R., & Arias, I. (1998).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and the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70-78.
- Rusbult, C. E.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101-117.
- Rusbult, C. E., & Martz, J. M. (1995). Remaining in an abusive relationship: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of nonvoluntary depen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6), 558-571.
- Shi, L. (2003).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conflict resolu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3), 143-157.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amres, L. K., Janicki, D., & Helgeson, V. S. (2002). Sex differences in cop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and an examination of relative cop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1), 2-30.
- Van Ouytsel, J., Ponnet, K., & Walrave, M. (2017). The associations of adolescents'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well-being and engagement in risk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55*, 66-71.
- White, J. W., Merrill, L. L., & Koss, M. P. (2001). Predictors of premilitary courtship violence in a navy recruit samp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9), 910-927.
- Weigel, D. J., Lalasz, C. B., & Weiser, D. A. (2015). Maintaining relationships: The role of implicit relationship theories and partner fit. *Communication Reports, 29*(1), 23-34.
- Wood, J. T. (2001). The normalization of violence in heterosexual romantic relationships: Women's narratives of love and viol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2), 239-261.
- 1차원고접수 : 2019. 04. 20.  
심사통과접수 : 2019. 09. 10.  
최종원고접수 : 2019. 09. 28.

##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Relationship Investment in Emerging Adulthood: The Moderation Effects of Gender, Implicit Theories of Relationships, Relationship Length

Hye-won Jeong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on effects of gender, implicit theories of relationships, relationship length in the relations between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relationship investment. For this purpose, the survey data of 334 emerging adulthoods(male: 139, female: 195) who are currently in relationship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PROCESS macro model 3 analysis showed that the moderated moderation effects of gender and destiny belief was significant. In brief, psychological dating victimization positively predicted relationship investment when men has low destiny belief. However, this relationship was significant when women has moderate or high destiny belief. In addition, dividing male and female in to each group according to the level of destiny belief, the moderation effect of the relationship leng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relationship investment was analyzed. The results of PROCESS macro model 1 analysis indicated that the moderation effect of relationship length is significant only for women who were in longer relationship.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 of this study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victims of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we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relationship investment, Implicit theories of relationships